

Deloitte Insights

May 2025



온디바이스시 시대:

시장 전망 및 활용 방안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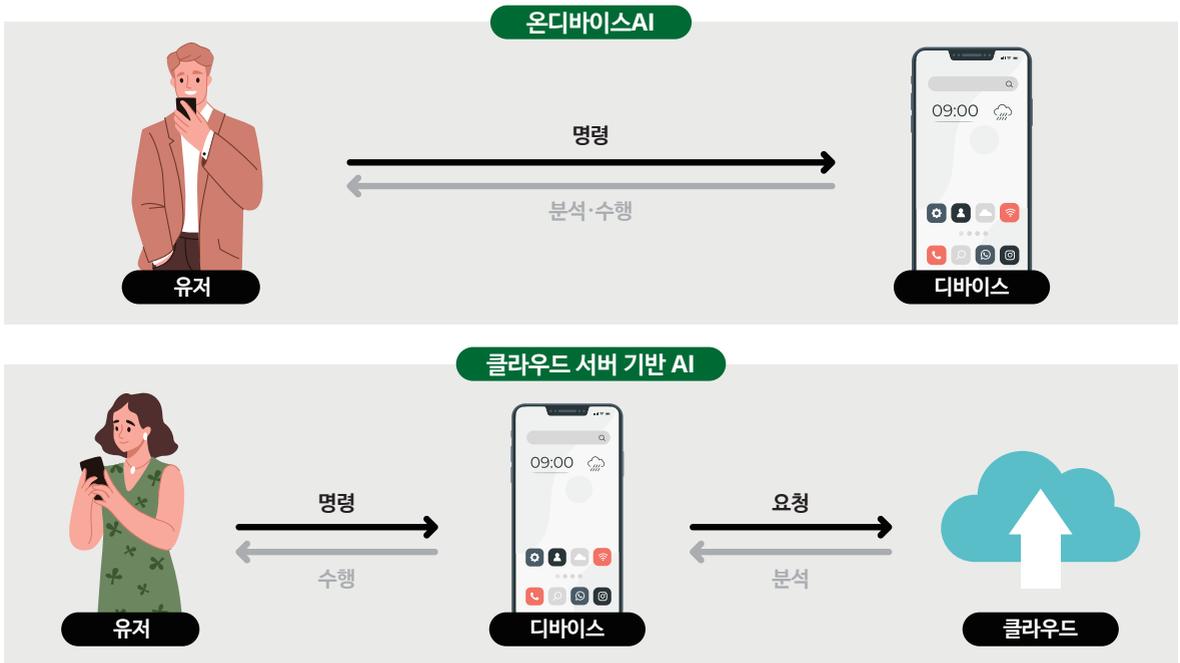
목차

온디바이스(On-Device) AI의 개념과 장점	03
시장분석: 온디바이스 생성형AI 스마트폰/PC 시장의 성장 전망	05
하이브리드AI 아키텍처의 필요성	07
온디바이스AI의 활용 사례	08
온디바이스AI 시장 공략을 위한 기업들의 고려 사항	11

온디바이스(On-Device)AI의 개념과 장점¹

온디바이스시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PC 등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직접 AI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시 기술의 등장은 개인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 1. 클라우드 시와 온디바이스시의 작동방식 차이



출처: 딜로이트인사이드

전통적인 클라우드 기반 시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여 처리한 후, 다시 사용자 디바이스로 결과를 변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시는 스마트폰, 노트북, 기타 에지 디바이스²에서 직접 AI 연산을 수행한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명령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지고 지연시간이 줄어든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에서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므로, 보다 빠른 응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터넷 연결 의존도도 감소하게 된다.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나 실시간 번역 시스템과 같이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및 보안도 강화된다.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향상된다.

온디바이스시의 가장 큰 장점은 운영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다. AI 모델이 클라우드를 벗어나 사용자의 디바이스 내부에서 직접 실행되기 때문에, 기업에 클라우드 연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데이터 전송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통신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온디바이스 구조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과금 리스크에서도 자유롭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 IoT 서비스 기업, 자율주행차 플랫폼 등에서 장기적 비용 효율성과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온디바이스시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표 1. 온디바이스시의 주요 장점

구분	장점	주요 응용 분야
실시간 처리 & 낮은 지연	클라우드 없이 즉각적인 AI 연산으로 빠른 응답 가능	음성인식, 사진보정, 번역 앱
인터넷 연결 의존도 감소	인터넷 연결이 없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AI 기능 수행 가능	교통 네비게이션, 군사/산업 현장, 해외여행 중 실시간 번역
프라이버시 & 보안 강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음	헬스케어 디바이스, 금융 앱
운영비용 절감	클라우드 연산 및 데이터 전송 비용 감소, 특히 대규모 디바이스 환경에서 큰 비용효과	스마트폰 제조사, IoT 플랫폼, 자율주행차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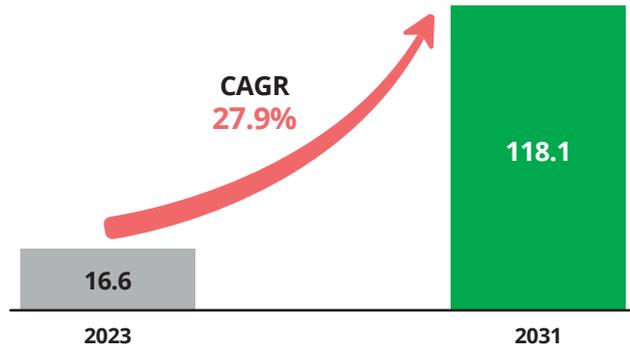


시장분석: 온디바이스 생성형AI 스마트폰/PC 시장의 성장 전망³

온디바이스시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PC,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용 에지 디바이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컴퓨팅(Spatial Computing) 활용 기기, 로봇 등 각종 기기에 온디바이스시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글로벌 온디바이스시 시장은 연평균 27.95%씩 성장해 2031년에는 1,181억 달러 규모(한화 약 167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⁴

그림 2. 글로벌 온디바이스시 시장 규모 추정치

(단위: 십억 달러)



출처: Verified Market Research, 딜로이트 인사이트 재구성

온디바이스시 스마트폰 시장 동향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기술 활용 및 제품 출시로 온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 AI 모델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사용자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강력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속도, 개인정보 보호,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칩과 광범위한 모바일 운영체제(OS) 통합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스마트를 넘어 지능화된 기기로 변모하고 있다.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비자 디바이스다. 스마트폰은 MP3,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합하여 대체하고 있다. 반대로 스마트폰의 소형화된 첨단 부품들은 수많은 소비자 및 산업용 기기의 등장을 촉발했다.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과 유용성으로 인해 소비자 행태와 산업의 경쟁 양상이 일변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시장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스마트폰 신제품은 혁신이라기 보다 지금까지 등장한 기능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스마트폰 생태계가, 생성형AI를 경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차세대 운영체제와 고성능 반도체 칩의 등장으로 다시금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생성형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며, 생태계 전반에 변화의 파장이 일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비 7% 증가해, 약 5% 증가했던 2024년에 비해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적 기기 업그레이드 주기가 꺾인 데다, 온디바이스 생성형AI를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얼리 어답터 소비자와 개발자들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말에 이르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생성형AI 지원 스마트폰이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기대만큼의 혁신을 가져올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단기적으로 주요 스마트폰 생성형 AI 통합을 통해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수요 촉발을 꾀하려 할 것이다. 시장이 포화 지점에 이르면서, 스마트폰 판매는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약 50억 명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모델 업그레이드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 평균 업그레이드 주기는 2~3년이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재량지출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몇 년간 사용할 제품이므로 기왕이면 상위 모델을 선택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업계는 단순히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가치와 편리성으로 무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분기에는 스마트폰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소비자 신뢰도가 회복된 데다 프리미엄 생성형 AI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막 싹트기 시작한 덕분이다. 딜로이트 2024년 서베이에 따르면, 커넥티드 기기 구매 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비자가 줄었다. 특히 유럽은 2024년 2분기까지 스마트폰 판매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이러한 서베이 결과를 뒷받침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가 스마트폰 업그레이드의 동인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양상은 시장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중 생성형 AI 기능을 써보고 싶어서 계획보다 빨리 스마트폰을 교체한다는 비율이 7%에 그쳤으나, 연령대를 스마트폰 의존도와 신기술 수용도가 높은 24~45세로 좁히면 그 비율은 50%로 뛰었다. 하지만 딜로이트 영국 소비자 대상 서베이에서는 응답자 4%만이 생성형 AI를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고, 생성형 AI가 유용하다는 응답자는 23% 그쳤으며 19%는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생성형 AI가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앞당길지는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가치와 유용성에 달려 있다. 2025년 스마트폰이 생성형 AI의 유용성을 시험에 들게 할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온디바이스시 PC 시장 동향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특화 온디바이스 칩을 탑재한 차세대 PC 시장 또한 사용자 경험, 유용성, 가치, 하이퍼스케일 생성형 AI의 진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생성형 AI 지원 PC 구매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 응답자 중 34%가 생성형 AI 지원 PC로 교체하기 위해 계획보다 일찍 노트북을 교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딜로이트 추산에 따르면, 연간 PC 판매량의 약 50%가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므로, 소비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기업 구매자들은 어떤 생성형 AI 코프로세서 PC 모델을 구매해야 사업적 타당성이 가장 높을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시장에서 다양한 PC OEM사들이 다양한 옵션과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최첨단 PC에는 특수 실리콘칩으로 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8년에 이르면 판매되는 모든 PC 중 80%에 이러한 실리콘칩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에 AI 기능 탑재 PC 약 900만 대가 출하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중 생성형 AI 작업부하를 감당할 만큼 강력한 신경망 처리장치(NPU)⁵가 탑재된 PC가 얼마나 되는지는 불확실하다. 결론적으로 잠재적 구매자들은 더욱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생성형 AI PC의 출시를 1년여간 기다린 후 PC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딜로이트는 2024년에 판매된 PC 중 약 30%에 온디바이스 생성형 AI 프로세싱 기능이 탑재돼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2025년에는 그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기준 판매량이 2억 6,100만 대로 12억 3,000만 개를 기록한 스마트폰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PC는 평균 판매가가 더 높기 때문에 판매액은 판매량보다 격차가 적다. 2024년 컴퓨터 판매액은 약 2,200억 달러, 스마트폰 판매액은 5,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생성형 AI PC 출시가 컴퓨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평균 판매가가 약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PC 판매는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과 PC 부품이 발전하면 공급망이 형성돼 가격이 내려가고, 이러한 공급망 속에서 동일 부품이 다수의 기기 시장으로도 유입된다. 생성형 AI 관련 부품 또한 이 같은 경로를 밟아 여타 커넥티드 기기에서도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브리드AI 아키텍처의 필요성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온디바이스AI가 클라우드AI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 AI는 AI 모델의 훈련(training) 과정에서 매우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클라우드 서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온디바이스AI와 클라우드 AI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AI 연산을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이 최적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디바이스 연산과 클라우드 연산을 적절히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AI 아키텍처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온디바이스AI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분산 처리(Distributed Processing)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니어 엣지(near edge)⁶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니어(근거리) 엣지는 사용자의 개인 워크스테이션(PC 등)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처리될 수도 있으며,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AI 연산을 온디바이스에서 수행하고, 어떤 연산을 클라우드로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계층적(hierarchical) AI 배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AI 아키텍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중요한 질문은 엣지에서 얼마나 많은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클라우드에서 얼마나 많은 워크로드를 처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비율은 자동차 환경, 금융 거래, 의료 서비스, 일반 소비자 시장 등 다양한 사용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핵심 성과 지표(KPI)나 사용자 경험 지표(XPI)에 따라 이 분배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온디바이스시의 활용 사례

딜로이트 컨설팅 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 AI 프랙티스 리더인 바리시 사레르는 몇 년간 소형 언어 모델(Small Language Models)의 등장과 2023년 후반부터 새로운 반도체 칩이 출시되면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AI 워크로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특히, 딜로이트는 퀄컴(Qualcomm)과의 협업을 통해 온디바이스시를 활용한 기술 검증(PoT, Proof of Technology)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CRM(고객 관계 관리)과 유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두 명의 비즈니스 인물이 대화를 나눌 때, 애플리케이션이 오디오를 듣고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후, 로컬에서 실행되는 소형 언어 모델이 대화를 요약하고, 핵심 행동 항목을 도출하며,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락처 정보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지면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벤더들 사이에서 온디바이스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에서도 다양한 활용 사례가 논의되고 있다.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기업 부문에서도 점진적인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특히 회의 환경에서 실시간 번역과 실시간 전사(transcription)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사데이터는 자동으로 요약되어 깔끔한 회의록으로 정리되며, 각 발언자별로 액션 아이템이 매핑된다. 또한, 이러한 AI 모델이 일정 관리 시스템과 연동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회의 일정 및 후속 조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온디바이스시의 활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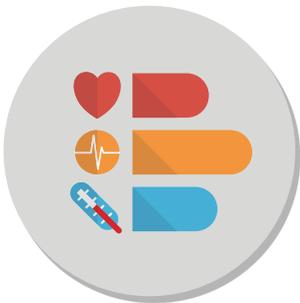
1. 스마트홈에서의 활용

온디바이스시는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가정 내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피커나 조명 시스템은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직접 분석하여 즉시 조명을 조절하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되므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더라도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사용자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아침에 자동으로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거나, 저녁 시간에 조명을 조절하는 등 맞춤형 자동화를 제공할 수 있다.



2. 자율주행차와 온디바이스시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온디바이스시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도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경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의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시가 즉각 분석하여 장애물을 피하고, 신호를 인식하며,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등 복잡한 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온디바이스시를 활용하면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차량 내부에서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3.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적용

건강 관리에서도 온디바이스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예를 들어, 운동 중 과도한 심박수 변화가 감지되면 경고를 제공하고,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측정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가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됨으로써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 빠르고 안전한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4. 스마트팩토리와 산업 자동화

제조업에서도 온디바이스시의 도입이 활발하다. 스마트팩토리에서는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이 불량 제품을 감지하고 즉각 수정하거나, 최적의 작업 경로를 스스로 학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또한, 온디바이스시는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클라우드와의 연산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제공한다.



5. 스마트 가전에서의 역할

가정용 전자제품에서도 온디바이스시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냉장고는 내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또한, 스마트 세탁기는 세탁물의 종류를 인식하여 최적의 세탁 모드를 추천하거나, 세제 사용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로봇 청소기는 집 안의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고,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설계하여 더욱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기기 내부에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6. 드론 기술과 온디바이스시

드론 분야에서도 온디바이스시가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은 비행 중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목표물을 추적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디바이스시는 비행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여 자율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클라우드와의 연결 없이도 고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 전송 지연 없이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드론은 다양한 산업에서 물류, 보안, 농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온디바이스시 시장 공략을 위한 기업들의 고려 사항

온디바이스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업들은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디바이스 자원에 최적화된 경량화된 AI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NPU(Neural Processing Unit) 등 온디바이스시 연산에 특화된 전용 칩셋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클라우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로컬에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AI 서비스 설계가 요구된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AI를 구현해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유용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및 플랫폼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디바이스에 쉽게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온디바이스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주석

1. Deloitte (2025), The impact of on-device AI: Enhancing performance, privacy, and user experience
2. 에지 디바이스(edge device)는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기로 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하는 사물 인터넷(IoT) 센서부터 비디오/감시 카메라, 인터넷에 연결된 가전 기기,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을 포함
3. Deloitte (2025), TMT Prediction 2025
4. Verified Market Research(2023), Global On-Device AI Market Size By Component(Hardware, Software)
5.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AI 반도체, 신경망 계산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
6.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의 한 개념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최종 사용자 장치(예: 스마트폰, IoT 센서)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
7. 한국전자기술연구원(2024.11), 온디바이스시 동향 및 활용 분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AI 및 산업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AI & Data 본부는 100여 명의 기술 및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AI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엔지니어링,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각 산업에 특화된 AI 최적화 방안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딜로이트는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AI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AI의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적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산업



최호계 파트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리더

☎ 02 6676 3227

@ hogchoi@deloitte.com



박형곤 파트너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리더

☎ 02 6676 3684

@ hypark@deloitte.com

AI & Data



정찬욱 파트너

Core Technology, Data Analytics |
컨설팅 부문

☎ 02 6676 2732

@ chanjung@deloitte.com



정창모 수석위원

AI 서비스 | 컨설팅 부문

☎ 02 6676 3288

@ changjung@deloitte.com



이성호 상무

AI & Analytics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67

@ sholee@deloitte.com

AI 혁신 및 거버넌스



김진숙 파트너

AI 혁신/거버넌스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4437

@ jessicakim@deloitte.com



심규승 이사

AI 통합 혁신 | 경영자문 부문

☎ 02 6138 5050

@ kyussh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양원석 Senior Consultant
wonsukyang@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